위해소통과 환경기초시설 노동자 건강권

박철용
영남대학교병원
직업환경의학과 교수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배출, 국제암연구소(IARC)의 아스파탐에 대한 발암성 평가 등 최근 환경보건 전문가들의 '위해소통(Risk communication)'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특정 질병, 암과 같은 질환이 단기간에 집단 발병하면 지역 주민들은 그 원인을 외부에서 찾게 되고, 원자력 발전소나 환경기초시설을 그 원인으로 지목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위해소통을 위한 설명회 개최 및 환경·건강 영향평가는 필수다. 필자가 근무하는 대학병원도 가동 초기 단계의 자원회수시설을 대상으로 연구용역을 수행한 바 있다. 해당 연구를 수행하면서 느낀 점은 시설 내부에서 근무하며 유해인자에 더 많은 시간, 더 높은 농도로 노출되는 노동자들의 건강 영향이 매우 시급한 문제라는 것이었다.

환경기초시설과 관련 유해인자

환경기초시설은 쓰레기 매립장, 소각장, 하수도 처리시설, 재활용품 선별장, 음식물류 처리시설 등을 통칭한다. 2022년도 기준, 재활용 선별장 노동자 6,198명, 음식물 처리장 2,338명, 소각장 3,826명, 매립장 1,077명으로 총 1만3,439명이 환경기초시설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1] 이들은 시설 직영, 시설공단, 민간 위탁 등 다양한 기관에 소속되어 있어, 고용·계약과 관련해 여러 문제를 안고 있었다. 이는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조사를 어렵게 만드는 요소로, 작업 특성상 외부와 차단되어 있는 현장 또한 유해요인 파악을 어렵게 한다.

소각시설만 하더라도 규모, 설립연도, 가동방식, 가동연한에 따라 그 특

1) 자료: 정보공개청구(2022.9)

성이 다르며, 소각로에 투입되는 폐기물에 따라 배출되는 유해인자의 성상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일반 생활폐기물과 의료폐기물, 산업폐기물 소각장의 노출 인자와 그 수준이 다를 것으로 생각되나, 정확한 노출 평가에 대한 연구는 부족하다.

소각시설은 일반적으로 24시간 가동되는데, 800~900℃의 고온으로 가동되므로 소각로 내부의 유지 보수 및 대정비가 정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철강산업, 정유산업의 경우 대정비, 유지보수에 투입된 노동자의 노출평가와 작업환경측정에 대한 연구는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졌으나, 직접 소각로 내부를 유지, 보수하는 환경기초시설 노동자들의 작업환경에 대한 평가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다이옥신, PAH, 분진과 같이 소각시설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잘 알려진 유해인자뿐만 아니라, 고온과 같은 물리적 인자, 폐기물 처리 과정에 노출될 수 있는 부유세균, 악취 등에 대한 평가도 필요하다. 특히, 근무환경과 고용불안, 열악한 처우에 따라 발생되는 우울, 불안 관련 정신질환에 취약한 노동자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 환경기초시설 내부에서 근무하며 더 많은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노동자들의 건강 영향은 매우 시급한 문제다.

환경기초시설 노동자들을 위한 보건관리 제언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산업보건에 대한 인식은 작업환경측정과 특수건강진단에 얽매여 있다. 향후 고용노동부에서 위험성평가의 확대로 사업장 자체의 개별화된 작업환경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나, 아직 구체적인 대안은 없는 실정이다. 소각장과 같은 환경기초시설에서 노출되는 여러 유해인자들 중 작업환경측정, 특수건강진단 대상 인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노동자들의 잠재적인 건강문제가 관리되지 않는다면, 향후 집단 암 발생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된다.

상대적으로 종사자 수가 적고, 일반 국민과 접점이 없는 환경기초시설 노동자들의 사회적인 관심은 덜하다. 현장 노동자들의 증언을 빌리자면, 사람들은 폐기물을 버리면서, 이 폐기물들이 어디로 가는지, 누가 처리하는지 관심을 갖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

종사자 수가 많고, 집단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노동자만이 건강권이 있는 것은 아니다. 향후,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시설별 평가, 유해인자 조사가 종합적으로 평가되고, 인근 지역주민들이 받고 있는 건강영향평가 수준의 검진과 추적관찰을 환경기초시설 노동자들에게도 수행되기를 제언하는 바이다. 내부 근무환경의 노출평가와 노동자들의 건강상태를 통해 지역주민들과의 위해소통에도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